

서호인의 '소설처럼'



이야기는 그릇이다 -박서련 외 '바리는 로봇이다'

옛이야기는 옛이야기 특유의 답답함과 고루함이 있다. 콩쥐팥쥐전과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는 놀랍게도 '계모'의 악행이 갈등의 뿌리라는 데에서 구체적인 공동점을 보이는데, 이는 가족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금에 와서는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이야기가 틀림없다. 바리데기 설화나 심정전은 또 어떠한가. 옛 이야기에서 약자는 쉽게 버림받았고, 그 운명을 공동체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현재의 관점으로 옛이야기는 대체로 아동 학대, 성차별, 약자 혐오 등의 혐의가 짙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인류의 원형을 제 안에 간직한 채 입에서 입으로, 글과 책으로 전승된다.

박서련 외 여덟 명의 작가가 참여한 소설 앤솔러지 '바리는 로봇이다'는 옛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두루 살필 수 있는 기획이다. 책에 참여한 작가들은 실체설의 성실한 연구자처럼 각자의 프로젝트에 열중했다. 그중 표제작 '바리는 로봇이다' (박서련 작)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화 바리데기는 딸만 일곱을 낳은 왕이 일곱 번째 딸을 버리면서 시작된다. 버림받은 바리의 귀환과 모험, 그리고 생존을 박서련 작가는 SF적 상상력으로 뒤집는다. 바리는 로봇이고, 로봇은 로봇을 주문한 인간의 변심으로 버려지지만, 다시 그 인간을 찾아온다. 바리가 (부모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돌아온 이유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다. 옛이야기의 바리는 신으로서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으나, 새로 태어난 바리는 로봇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가능이 불가능한 만큼이나 가능도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마치 이야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변하고 또 유지되듯이.

조예은의 '탑 안의 여자들'은 그림 형제의 동화 '라푼젤'을 다시 쓴 작품이다. 원작에서 라푼젤은 마녀에 의해 탑에 갇히고 왕자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조예은의 작품에서 라푼젤은 마녀에게 구원자가 된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캐릭터인 라푼젤을 현대에 맞게 주체적으로 바꾼 디즈니의 전략에서 더 나아가, 소설은 인물의 관계마저 전복시킨다. 원작에서 소녀 라푼젤의 적은 같은 여자인 마녀였고, 마녀의 저주는 왕자를 만나야만 풀린다. 소녀는 결국 왕자에 의해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이는 마녀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어디서 많은 본 설정. 반면 '탑 안의 여자들'의 여자 둘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처지를 가엾게 여기며 거기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찾는다. 그 연대는 높고 병든 이를 업은 채 높은 탑의 나선형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일반급 지남자였지만,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배예람 작가의 '헨젤과 그레텔의 거처'는 보다 직접

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헤매다 숲속의 과자집을 발견하지만, 배예람의 작품에서 오누이는 부동산 시장의 광풍에서 버림받아 임시 거처를 찾는다. 돌에 집은 그저 당장 몸을 누일 수 있는 자그마한 보금자리였는데, 세상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한 세상에서 쫓겨난 청춘에게 과자집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 최선의 것이지만 절제된 단정함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나 먹고 마실 것은 무한정 제공되었으며 집이라면 웬만해 할 청초나 설거지도 오누이에게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레텔은 집 어딘가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를 듣는다. "분명…… 했는데" 그 소리의 정체는 또 다른 청년들이었다. 헨젤과 그레텔이 그랬던 것처럼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어떤 사연으로 과자집에 온 것일까? 들은 과자집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시간을 거슬러 현대에 당도한 옛날이야기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야기라는 원형은 우리의 삶을 담은 거대한 그릇이 된다. '바리는 로봇이다'는 옛이야기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거기에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물과 서사, 감각과 인식으로 새롭게 구워진 단단한 그릇이다. 그 그릇에 담긴 이야기는 각기 다른 맛을 낸다. 그 맛이 무엇이든,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다. 시대를 반영하고, 인간을 투영하며. <시인>

의료칼럼



이두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료과장

천식

모만 있는 경우는 30%이다. 반면 부모가 모두 건강할 경우에는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숨 쉴 때 특히 숨을 내쉴 때 쉼쉼거리는 소리가 나는 천명,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이다. 이 네 가지 전형적인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증상의 강도가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악화하면 천식을 의심한다. 천식 증상은 감기나 운동, 날씨 변화, 알레르겐 및 자극적 물질에 노출될 때 더욱 심해지며 호흡 곤란과 함께 기침과 가래 등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쉼쉼거림이나 호흡 곤란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만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천식 치료는 경구형 치료제와 흡입제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약물은 흡입제다. 호흡을 통해 기관지로 직접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데, 먹는 약이 아니라 들이 마시는 약이다. 피부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기관지 염증에 약을 직접 뿌려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직접 약을 뿌려주는 만큼 경구형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고 좋으며, 전신 부작용도 적다.

천식을 치료하는 약물에는 흡입 약물과 먹는 약물이 있는데, 흡입 약물이 천식 치료에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기관지에 직접 약이 전달돼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흡입 약물은 천식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가 있다. 천식 조절제는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천식 발

작을 예방하며, 특히 기관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기도 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각적인 기도 확장을 일으키지 않아 증상 완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증상 완화제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응급약물로 사용하는데 증상 완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반면, 근본적인 치료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만 계속 사용하면 천식은 계속 악화된다.

흡입제는 크게 두가지로, 기도 내 염증을 조절하는 흡입 스테로이드제와 기도를 확장시키는 기관지 확장제인 베타2 항진제다. 스테로이드제는 주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중증 이상의 천식에서는 매일 규칙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해 모든 단계의 천식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천식은 만성질환이므로 기관지 염증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장기간 사용해야 하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천식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평생에 걸쳐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다. 현재 증상이 호전됐어도 실제로 기관지에서는 염증이 지속되고 있어, 치료를 중단하면 염증이 악화되고 증상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관지 염증이 지속되면 기관지 변형을 초래해 폐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고 이후에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치료의 중단은 본인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고

문화예술 관광 신산업



장현우 나주시 문화예술특화 사업단장

것이다. 예술가가 더 많은 관찰과 사색으로 문명을 꿰뚫고 새로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자각이자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대중 의식이 문화 전반이지만 발전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무라카미의 발언은 인류 보편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해 다양성과 무언가를 창조하는 상상력을 통해 신선한 자극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본다. 부산시립미술관의 '무라카미 쯔미'는 한참 줄을 서며 입장해야 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미술관이 장소나 환경의 문제로 관람객 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도심이든 외곽이든 심산 유곡 산속이나 바닷가라도 좋은 기획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신선함이 현대인의 발길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미술관 시대의 관심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미술관이 지자체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쉬운 마음이다. 관광산업을 꿈꾸는 지자체는 당대 트렌드에 부합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유동 인구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카르텔이 지역민 전체의 먹거리를 위협한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틈새가 심한 지역은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 앞에 '끼리끼리 먹고사니즘'은 지양

해야 할 것이다. 지구촌이 과학 발전과 더불어 거리가 좁아지고 정보에 따라 격차가 없어지는 현실에 '전통 문화와 우리 것' '한국적인 것'을 넘어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을 앞세운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벽을 무너뜨리고 경계를 넘는 상상력과 꿈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문화예술 발전도 관광과 융합된 신산업도 시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주지하다시피 관광산업은 지역민 주머니를 현장에서 직접 채워 주는 기초 경제 효과가 탁월하다. 각 지자체가 공약이든 뭐든 간에 관광산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현대인의 니즈와 문화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말만 앞세우는 포퓰리즘이거나 타 지자체가 성공하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형태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다. 탈산업화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문화 소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경험과 신선한 자극이 없는 지자체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름수록 격차가 심해질 것이며 그 속도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질 것이란 생각이 든다.

관광 형태 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니즈는 '전통과 현대' '인공과 자연' '반추와 기대심리'에 있다. 빨라진 정보와 지구촌 거리가 좁아진 이 현실은 문화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영한 눈높이 기획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社說

'기대반 우려반' 층수 제한 폐지, 난개발은 막아야

광주시가 건물 층수 제한을 2년 만에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시정에서 민선 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오는 4·5월부터 확립화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다. 디자인 혁신을 위해 건축·경관·교통·개발행위 등의 통합심의 활성화와 용적률 차등 적용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 건축물을 짓도록 높이 관리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입지 여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도시를 대표하는 고층 랜드마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스카

이라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 확립적인 도시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광주시도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기존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과 광주천, 송정역 등 네 곳에서 일곱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광천사거리와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높이 제한이 '아파트 도시 광주'의 고층 공동주택 난립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으로부터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층수 규제 폐지가 자칫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경관 심의 과정 또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신입생 40% 미충원도...더 심각해진 지방대 위기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3000여 명이나 채우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광주·전남 대학은 각각 아홉 개교씩 18개교에 달했다.

미충원 인원은 광주권 대학이 1554명, 전남권 대학이 1475명으로 모두 3029명이다. 광주의 A대학은 신입생 정원 722명의 40.7%인 294명을 추가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남의 B대학은 정원 1741명의 19.5%인 341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 올해 국내 대학에서 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 인원이 1만 5579명 발생했는데 90% 가량이 지방권 대학이었다. 추가 모집 상위 50개 대학 가운데 49개 대학이 지방대였고, 광주·전남

권 대학 입학 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광주의 한 대학은 추가 모집을 여섯 차례나 진행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전 교직원일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20~30%씩 추가 모집 인원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번 정원 미달에 420명이나 포함됐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입생 정원마저 채우지 못한다면 존립은 불가능하다.

흔히 지방대 위기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날로 실감이 난다.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지만 탓만하고 있을 순 없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대학이 살아야 한다.

無等鼓

8분 전에 올라온 사진은 네발의 오래된 도시 포카라 풍경이다.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산과 알록달록한 집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이국적이다. 포카라에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케리 베리가 찍은 사진이다. 10분 전에는 잉글랜드에 사는 마리아가 자신의 부엌에서 찍은, 눈 내린 겨울 풍경을 올렸다.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진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은 페이스북 'View from my window'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 페이스북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사진들은 모두 '자신의 창밖 풍경'이라는 곳의 '차

각자의 창밖 풍경 사진을 공유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너도나도 사진을 찍어 올리며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물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참여해 인도 뭍바이, 호주 시드니, 중국 베이징,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카치카우 등 100여 개 도시 20만 개가 넘는, 각자가 바라보는 창밖 풍경을 올린 것이다.

당신의 창밖 풍경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약 260여 개의 풍경은 사진집 '당신의 창밖 풍경'로 출간됐다.

코로나 기세는 한풀 꺾이고 이제는 해외여행도 가능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어 올린다. 22일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가 350만 명에 달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서로 위로하며 건너는 사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소중함을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모른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약 260여 개의 풍경은 사진집 '당신의 창밖 풍경'로 출간됐다.

코로나 기세는 한풀 꺾이고 이제는 해외여행도 가능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어 올린다. 22일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가 350만 명에 달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서로 위로하며 건너는 사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소중함을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모른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